

# KIA 없이는 못산다더니 KIA車는...

### 광주 점유율 32.6%로 현대차에 밀려...전남은 35.6%

### 특·광역시 중에서 1위...수입차 마케팅 강화 시장 잠식

“KIA 없이는 못산다~.” 기아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광주구장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응원가로, 기아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이 묻어 나온다.

아구만 그럴까. 지난해 광주지역의 기아차 점유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전남의 기아차 점유율도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도 단위 지역 중에는 가장 높았다. 지역에 공장을 두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수입차 마케팅과 다른 완성차업체의 신차 출시 등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조짐도 엿보인다.

◇선호도는 여전히...=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기아차 점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광주에서 1만 3941대가 팔려 32.6%의 점유율을 기록, 서울(25.6%), 부산(23.0%), 대구(20.1%), 인천(29.1%), 대전(28.3%), 울산(19.7%)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기아차의 광주지역 점유율은 전국 평균 점유율(29.1%)에 비해서도 높았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신규 등록된 8만 5150대 중 기아차가 3만3022대로 점유율(35.6%)은 1년 전(34.8%)보다 7.1% 포인트 늘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주로 카니발(6638대), 쏘렌토(5825대), 스포티지

(5196대), 봉고(4816대), K5(4104대) 등 순으로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데, 기업에 채용된 지역민들과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많은 점 등도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은 불안한데...=안심하긴 이르다. 수입차업체가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지역 기아차 점유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아차는 3년 전인 2016년만 해도 광주지역에서 35.2%(1만 5934대)의 점유율로, 현대차(31.9%·1만 4427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만 해도 광주에서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아차 점유율은 이후 2017년 32.7%(1만4468대)→2018년 32.6%(1만3941대) 등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다. 같은기간 현대차의 광주지역

점유율이 31.9%(2016년)→35.7%(2017년)→37.5%(2018년)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전남에서도 39.4%(2016년)→41.0%(2017년)→41.6%(2018년) 등 꾸준한 상승세인 현대차 점유율과는 달리, 기아차 점유율은 35.9%(3만500대·2016년)→34.8%(2만8291대·2017년)→35.6%(3만3022대·2018년) 등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양새다.

수입차도 광주에서 12.6%(2016년)→12.9%(2017년)→14.7%(2018년) 등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기아차 판매량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차 생산 공장을 둔 울산의 현대차 점유율이 54.0%(2016년)→56.7%(2017년)→60.6%(2018년)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광주지역 기아차 점유율과 비교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7.10 (-0.52)	금리(국고채 3년) 1.81 (0.00)
↑ 코스닥 749.76 (+0.85)	↓ 환율(USD) 1130.40 (-0.20)

## 지자체 금고 유치 과다경쟁 완화 나서

###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등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협력사업비의 경우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과다경쟁 완화를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4점→2점)을 축소하고 금리 배점(15점→18점)을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한

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선정에 반영, 올해 상반기 중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를 강화,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5점→7점)을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 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금고선정 평가결과를 총점으로 공개하는 방안과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시 스마트 플랫폼으로 재난 예방관리 나선다



이용섭(맨 오른쪽) 광주시장과 오기섭( / 세번째) KT전남고객본부장이 19일 말바우시장에서 KT 스마트 재난 예방관리 플랫폼으로 2019국가안전대진단 현장보고를 받는 시연을 하고 있다. <KT 제공>

실시간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예방관리 플랫폼이 구축된다.

광주시와 KT전남본부는 지난 19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현장센터에서 시범 구축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장 1주차장 입구에 마련된 현장센터에서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무등시장·도시철도시설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구축된 스마트 재난 예방관리 플랫폼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시장은 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헬멧으로 생생하게 촬영된 말바우시장 현장 곳곳을 살펴보았다.

KT전남고객본부는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재난 예방관리 플랫폼을 광주·전남지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오기섭 KT전남고객본부장은 “광주시와 협업을 통해 KT의 최첨단 미래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재난 예방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KT 5G 기술을 적용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28일 광주서 열려

현대차그룹이 협력사들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채용박람회가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린다.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올해가 8회째로,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8일)와 대구(4월 8일), 창원(4월 16

일), 울산(4월 30일)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이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행사 기획과 운영까지 재정적 지원을 전담한다.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부품과 설비·원부자재 협력사 등 전국적으로 약 260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광주지역의 경우 30개 협력사가 부스를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s://hmgjobfair.career.co.kr>)를 운영하면서 현장 예비면접 사전예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김영주 대표 선출

김영주(59·사진) (주태호종합건설 대표)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광주시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대 대신, 경선으로 진행되는데, 협회 회장·부회장의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선거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협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김 대표가 회장에 선출되면서 광주 건설업계가 변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제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주 태호종합건설 대표를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4년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2023년까지다.

김 대표는 179개 회원사들 중 159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83표를 획득, 75표를 얻는데 그친 이관수(59) 고

운건설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회원들의 뜻을 새겨

지역업체의 수준불량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시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원 중심 협회 운영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8년 결산과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확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우리 금수장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062) 372-7878